

브라질, 신규 장갑차 구매 계획

□ 주요내용

지난 1.23-26일 런던에서 개최된 IAV 2023(국제장갑차 컨퍼런스) JANES(영국 민간군사정보컨설팅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은 새로운 주력전차(MBT), 보병전투차량(IFV), 자주포(SPH)를 구매할 계획이다.

계획에 의하면 36대의 차륜형 자주포 구매와 52대의 레오파드1A1 전차 업그레이드를 2023년부터 시작할 예정(6월중 RFP요청)이다.



(CentauroII)

IVECO그룹으로 부터 수백대의 차륜형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며, 22년말 브라질 육군은 Iveco-Oto Melara컨서시움(CIO)로부터 120mm 건을 장착한 CentauroII 8x8차륜형 장갑차를 선정한 바 있다. 98대의 CentauroII를 취득하여 전장에 배치될 계획인데 2022년 12월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2023년중 기술 평가를 위해 2대의 프로토타입이 인도되고 성공적이면 7대가 법적 절차를 위해, 나머지 89대는 15년에 걸쳐 인도될 예정이다.



아울러 브라질에 기지를 두고 있는 Ive Latin America에서는 850대의 Guarani 6x6 수륙양용 장갑차(병력수송차, 지휘소, 통신 장비, 박격포 등 장착 버전)과 186대의 4x4 다목적용 경장갑차량 (순찰, 지휘차량, 레이드, 전자장치 운반, 화생방 등 다목적용)도 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1.23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작년 12월23일 브라질에서 156대 Guarani 장갑차를 구매하기 위한 LOI(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Guarani장갑차에 대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검토의견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이후 군전술차량, 특장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에서는 군전술차량, 군용 트럭 등 군용차량과 시위폭동진압을 위한 다목적용 경장갑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군용차량 및 특장차량 생산기업은 현지 관련 입찰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현지 생산을 희망하고 있어 현지 기업과 기술이전과 합작투자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보원 : JANES 1.30일자 등 방산센터 취합